

10월17일(월)/딤후1:10~16

제목: 마음 따라 갑니다.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레테 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단들은 돈을 목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레테의 많은 가정들을 뒤엎었다(11절). 이단의 어떤 지도자는 그레테 인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였는데 바울은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하였다(12~13절). 그러므로 바울은 그레테 인들을 엄중히 책망하고 가르쳐서 이단의 허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14절). 그레테 인들은 본래 가증한 이단에 잘 넘어갈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본래부터 깨끗하지 못했으므로 항상 더러운 것에 매력을 느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다(15절).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생각, 말, 행동이 다 깨끗하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만지는 것은 모두 다 그 사람과 같은 질로 변한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잡으면 그것은 곧 시커멓게 변한다. 뻘뻘어져있고 뒤틀린 사람은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이러한 것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10월18일(화)/딤후2:1~14 (1)

제목: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습니다.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도가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기 보다는 교회에서 어르신에 해당되는 나이 많은 분들을 잘 가르치면 저절로 젊은이들이 잘 통솔될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혈통이 아니하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가르치라고 하였다(2~3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모델이 되면 교회 내 젊은이들은 좋은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4~6절). 강제적인 규범에 의해서 통솔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범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에는 힘을 쏟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년 교육 혹은 노인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교회 내는 질서가 바로 선다. 노인대학, 실버학교, 늘푸른교실이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교회에서는 버릇없고 무질서한 젊은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는 교훈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0월19일(수)/딤후2:1~14 (2)

제목: 몸소 행하는 지도자

바울은 디도에게 스스로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진지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7절). 그리고 책잡힐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가르치면 반대자들은 흠잡을 근거를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8절). 바울의 요지는 간단하다. 지도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 밑바닥에는 그 자신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에게 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도자는 항상 유혹을 받는다. 지도자는 항상 자기 선전의 유혹을 받는다. 자신의 재능과 학문과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지도자는 항상 독재에 대한 유혹이 있다. 지도자는 자기 지위를 통해 생계를 세우려는 유혹이 있다. 이런 여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탁월한 설교는 오히려 더 큰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아마 지도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는 먼저 자기가 몸소 보이고 나서 우리를 가르쳤다” 는 말일 것이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사랑하시고 가르쳐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먼저 그것을 실행하셨다.

10월20일(목)/딤후2:1~14 (3)

제목: 남의 돈을 떼먹지 마시다

바울은 크리스찬 종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아마도 기독교가 당시 종들에게까지 보급되어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다.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주인들을 기쁘게 해야 하며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9~10절).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빚내는 일이 된다(10절). 크리스찬 종들이 그런 속된 행실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12~13절). 당시 종들 중에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슬쩍 훔쳐서 자기 것으로 모아두는 일이 많았다. 이는 종들이 주인이 장사하는 일에 고용되어서 주인 몰래 그 판 것의 일부를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시 이러한 악풍을 경계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이러한 비양심적인 불법에서 건져내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14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비양심적으로 남의 돈을 떼어먹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10월21일(금)/딤후2:15

제목: 설교는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지도자와 가르치는 자의 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첫째, 지도자는 ‘말하는 임무’ 즉 설교하는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자기 교인들을 실망시키는 설교자는 자신의 임무에 실패한 사람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보다 훨씬 크고 높은 은혜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죄인은 자기 죄에 눈 뜨게 해주어야 하고 말씀에 지각이 없는 자는 그가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면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지도자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는 임무가 있다. 여기서 ‘권위’는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리킨다. 지도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 성도를 제압하거나 책망해서는 안되고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기준 아래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했다. 이러한 당부는 디모데에게도 주었다.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 수 없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설교하여 그 설교대로 살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지도자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